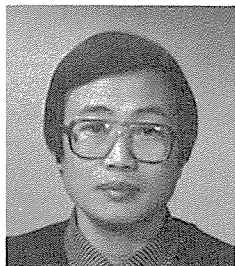


빈부를 구별짓던



우유의 추억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송 제 철 교수

1960년대 초 배불리 먹지 못했던 지난 시절 잉여 농산물의 수입에 끼니를 의존했던 암울하고 배고픈 국민학교시절의 기억이다.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분유를 배급받는 날은 온통 설레임과 분유의 독특한 서양 내음새에 대한 매료에 가슴부풀어 언제나 키보다 긴 밀가루 자루(푸대라고함)를 보자기 가방속에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던 기억이 새롭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온통 까까머리 여기저기에 기계충과 부스럼이 더덕더덕했고 몸 어느곳하나 성한곳이 없었던 때라 분유의 배급은 배고픈 설움은 물론 아쉽게만 느껴졌던 신체적 허약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휩싸여 어린시절의 나약한 심신에 큰 위로가 될수밖에 없었다. 배급탈때는 항상 푸대주둥이를 크게 벌여 조금이라도 많은 분유를 받고저 애썼던 일이 어찌 혼자만의 욕심뿐이었으랴. 그날은 큰 양재기에 듬뿍 분유를 물에 타서 사카린이나 검은설탕으로 간을 맞춘후 몇사발이고 마시고 또 마셔대고…… 그리고 밤새도록 정낭(변소의 사투리)을 드나들던 기억이 두고두고 새롭기만 하다. 으레 그다음날 등교길에는 항상 콧속의 찜찜(딱딱하고 황금빛이 나는 단단한 우유

덩어리)덩어리가 손에 쥐어지고 그것을 설새 없이 깨물고 즐기워하던 그 모습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 당시 우유는 그야말로 보약이었다. 빗장풀듯 뽀드득한 잔잔한 가루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유 한웁큼을 입에 털어놓고 목이 매어 푹푹거렸던 우둔스런 추억 또한 유별난 것이었다.

1960년 말부터 가정으로 우유가 배달되었던 것 같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유의 위력은 말로 이루다 형용할수가 없었다. 우유를 배달받아 마시는 우유는 우유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당시 빈부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빈부의 척도로 더 인식되었다.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뽐내며 은근히 집안의 부유함을 팔시하였고 우유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은 언제나 기가죽어 시무룩하고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뿐이었다. 특히 우유를 맛본 아이들은 항상 힘자랑을 주문해 왔고 그때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우유의 위력에 밀려 항상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억밖엔 없다. 병우유를 마시면서 대단한 보약 마시듯 우쭐해하는 철없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머물고 있을뿐이다. 그 당시의 우유는 모든 아

이들의 가슴에 회한과 좌절을 안겨 주었으며 부자와 가난함을 구별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우유는 귀족들이 독점하였다.

실제 언제부터 사람들이 우유를 음용해 왔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 이집트의 고대조각에서 추정된바에 의하면 BC 6천년전에 이미 소를 기르고 사람들이 소의 젖을 마시고 식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소는 고대 유목농경시대의 자연농경에 가축으로서 이용되었으나 사람들이 가축화된 소의 젖을 식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시적으로 음용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다른 학설에 의하면 우유와 인간과의 관계는 BC 5천년경일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성경에는 우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테인의 이상향(理想郷), 즉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였으며 BC 4백년에 히포크라테스도 그당시 우유를 건강식품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며 호오드는 “젖소는 인류의 유모로 옛날 헷두시대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생명을 유지시켜준것으로 매우 친근하고 유익한 동물이다”라고 하여 젖소의 귀중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우유의 이용은 원래 서부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서남아시아, 시베리아, 북유럽, 동서유럽으로 확대되고 특히 세계 3대 문명발상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문화형성과 함께 우유의 식품화가 발전하여 우유문화권 즉 고유 지역적 민족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화발전은 우유와 유제품의 식용화에 그 기원을 찾게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제국들은 우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에게서 젖을 빼앗는다는 자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는것같다. 어머니에게 젖을 빨리면 모체가 허약해진다는 속설에 근거하여 소로부터 젖을 짜면 그 소는 힘이 빠져 농경에 이용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혹자는 이러한 우유의 생활화, 식품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동서양의 신체구조가 오랜세월동안 고착화된 결과 서양인은 키다리, 동양인은 땅딸이로 점진적으로 진화했으리라는 재미있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떻든 동서양의 우유에 대한 시각차는 완전히 달라 그 내용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유의 전래에 관한 학설은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북방유목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할때 자연스럽게 우유의 식음화가 전래되었다는 북방유목 민족전래설과 살생을 금기로한 불교국가에서 소고기 대신 우유를 마시게 하였다는 불교전래설이 있으나 어느것하나 확인된것은 아니다. 기록상으로 7세기의 삼국시대에 이미 우유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으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것은 백제 마지막 임금 의자왕때 복상(福常)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효덕(孝德)천왕에게 유락(乳酪)을 만들어 바쳤으며 현재도 복상이 일본에서 우유의 시조로 숭앙받고 있는 사실을 근거하여 이미 삼국시대에 우유가 음용되었을것이라는 해석이다. 그 당시 복상은 우유를 젖소가 아닌 일소에서 부터 얻었으며 착유(젖을 짜는것)기술도 대단히 발전된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우유의 이용과 우유문화는 통일삼국시대의 불교숭상정책으로 다소 침체되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식용대상은 오직 귀족에 국한하였으며 희귀식품, 보강(補強)식품, 강정(強精)식품등으로 식품보다는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강하여 고려말기에는 귀족층의 선물수단으로 백성을 외면한 공여목적으로 귀족들의 독점물로서 그 상품적가치는 대단하였다. 특히 고려말기 원(元)나라의 강요된 공물(貢物)의 품목에 유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그 성가(聲價)는 대단하였다. 고려사 열전(高麗史列傳)에 보면 명종때 간의대부(諫議大夫) 이순우(李純佑)는 “근래에 의관(醫

官, 현재의 의사)들이 약을 만든다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우유를 강요하고 이를 유락(乳酪)으로 만들므로 많은 암소와 송아지가 고루 퇴폐하였다”라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말년에는 중앙에 우유소(乳牛所)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궁실(宮室)과 척신, 귀족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또 고려 충렬왕때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어산불영봉(魚山佛影峰)에 의하면 “용(龍)이 소먹이는 사람이 되어 왕에게 유락(乳酪)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그 후의 기록에도 궁중의 희귀한 요리나 약용 또는 보약으로 우유가 이용되어 대부분이 왕실의 전유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고려가 몽고의 지배하에 있을때 식품에 있어서도 몽고식을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당시 몽고인들은 양이나 말의 젖으로 술과 기타 가공식품을 만들어 먹었지만 고려인들은 양이나 말의 젖보다는 소의 젖 즉 우유를 마시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유의 귀족독점화는 조선왕조에 가서도 계속되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은 궁중에서 임금의 마음에 드는 궁녀를 은밀하게 불러 사랑의 은전(恩典)을 베푸는 일이 많았다. 이규태 칼럼에 의하면 이를 별입시(別入侍)라 하여 임금의 사랑(?)을 받는 궁녀에게는 개인적 영광이요 만약 인정(?)을 받기라도 한다면 그 궁녀는 후궁자리까지 넘보게 될지모른다.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별입시가 끝나면 으레 임금의 양기보양(陽氣補陽)을 위해 소젖으로 끓인 타락죽(駝酪粥, 서양의 오토밀 비슷한 쌀과 우유로 끓인죽)이 작은 은술에 담겨져 들어오게 마련이며 임금은 이 타락죽을 먹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것은 임금이 타락죽을 조금 남겨서 궁녀에게 주어지는 경우 이 죽이름을 분락기(分酪妓)라 하여 다음번의 별입시를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유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향유할수있는 고귀한 식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조(先祖) 8년(1575년)에 대비(大妃)인 인순(仁順)왕후가 돌아가자 이에 선조는 애통해하는 정도가 지나쳐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중신들은 임금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중신들은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자주 우유를 드십사고 권한일이 있으며 인조(仁祖) 14년(1636년)에 임금은 왕비의 죽음을 애통해하여 제대로 수라를 들지않고 우유등을 먹으면서 지내자 약방에서 정상적인 수라를 드실때까지 우유 올리는 것을 중지시켜 임금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일도 있으며 영조때(1768년) 발갈때가 가까우니 우유바치는것을 중지하고 그 소를 원고향으로 보내어 농사를 돕게 하도록하였다. 실제 그당시에는 젖을 짜는 소가 따로 없었다. 옛날 화적(火賊)때가 돈 많고 권세많은 사람의 행차를 덮치면 맨 먼저 상투속에 숨겨다니는 건락(乾酪, 오늘날 치즈같은것)덩이를 약탈했으며 고관대작집에도적이 들때도 예외없이 유제품은 약탈품목으로 중요시하였다.

한국낙농업의 시작은 1902년 당시 농상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 쇼트(Shorte)씨가 젖소 20마리를 도입하여 사육한이래 1937년 상업적인 우유살균처리기가 이루어졌으며 1962년까지 수공업적, 원시적인 우유를 생산하는 정도뿐이었다.

우유는 신이 창조한 최대 예술품이다

얼마전 보사부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많이 길어졌다고한다. 서구에 비하면 아직도 평균수명이 짧고 최고 장수국인 일본과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혹자는 이런 결과가 바로 우유의 소비량차이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한다.

저자도 식품학을 강의하면서 곧잘 우유의 신비함을 역설하곤한다. 실제 우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중 가장 합리적, 이상적조건을 갖춘 완전식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세상에는 완전(perfect)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유에게만 완

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조화, 즉 우리 인체에 절대 필요한 5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있게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우유성분이 곧 인체의 성분요소이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번째 먹을수있는 식품은 오직 젖뿐이다. 포유동물의 젖은 원래 새끼를 기르기 위하여 분비된다. 분만후 일정기간동안은 새끼가 이용할수있는 유일한 식량이라는 생물학적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분조성은 새끼의 영양발육을 위한 모든 성분을 갖추고 있어서 식품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우유의 성분은 혈액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유방에서 생합성된 성분들과 혈액성분으로 직접 우유속으로 이행된 성분들이 유선(乳腺)내에서 생합성된 것으로 젖의 신비로운 성분적가치와 소화성은 신비 그 자체이다. 포유동물이 신비스러운 이유는 바로 젖을 새끼에게 빨리게하는 모성적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유빛같은 은화하고 은유하면서 평화스럽다. 찬란하지도, 가볍지도, 천하지도, 빛이 바래지도 않는다. 따뜻한 모정이 스며들어 있는 소박함 그 자체이다. 맛은 달지도, 쓰지도, 맵지도, 짜지도, 감칠맛도 찾아볼수없는 자연의 순수한 맛 그대로이다. 형용할수 없는 순진하고 진솔한 맛때문에 우유의 맛을 우유의 맛으로밖에 표현할수 밖에 없다. 또 우유의 풍미는 싱거러운 처녀의 풋내음새와도 같다. 퇴색되지 않고 한번도 노출되지않은 은근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모두 230여종의 오묘한 휘발성성분들이 천연의 조화속에 은은한 향기를 발현하고 있다. 그 향기는 결코 인간이 재현할수 없으리라.

필자는 우유를 사랑하는쪽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유때문에 많은 덕(?)을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미국유학시절, 우유마시기 운동(?)덕분에 허약했던 체질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었고 모든 요리에 우유를 첨가한 독

특한 요리법(?)도 많이 개발하여 주위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곤 하였다. 그 가운데 라면조리법은 지금도 나의 조리특허중의 하나이다. 물과 우유를 3:1정도를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우유는 항상 스프와 함께 첨가하였다. 지금도 필자는 라면만으로는 영양보충이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해본 것이었다. 그런데 역시 우유의 은은한 맛으로 라면의 진가가 발휘되고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하였듯 우유는 신비한 식품이다. 인간이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수 없는 오묘한 생명의 샘물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날 많고 많은 가공식품들이 그 모습을 내 밀고 있지만 모두 은폐되고 거짓가면을 쓴 죽은 식품들이다. 색을, 향기를, 맛을 내기 위한 수많은 거짓을 붙여 넣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뭔가 식품도, 소비자도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 날뛰고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인스턴트사랑과 인생을 배우고 있다. 차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신경질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도 뭔가 식품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지...

다만 그렇게도 우유의 진가를 알고 있는데도 우유재고가 날로 증가한다는게 그저 이상할뿐이다. 아직도 우유를 사치식품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우유소비가격이 너무 비싸서인가? 하기가야 우유회사들도 소비패턴에 적당한 우유며 유제품을 개발하고 공부해야 하겠지. 모두 우유같은 순수한 마음으로.